

'호랑이는 복을 심고' 특별전

KBS전주방송총국, 임인년 검은 호랑이 해 맞아 KBS갤러리서 미술관 솔 초대 진행

KBS전주방송총국이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특별한 전시회를 연다. KBS갤러리에서는 미술관 솔(대표 서정만)을 초대해 호랑이 복의 기운이 충만한 호랑이 그림(虎圖) 전시를 기획했다. 3대에 걸친 작품 수집으로 좋은 작품만을 엄선해 전시를 기획함에 그 의미가 깊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동물로, 용맹하고 강인한 기상을 지니고 있다. 벽사의 상징인 호랑이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동물로 인식됐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공중의 관료들에게 신년을 송축하는 의미로 세화(歲畵)를 하사하였다. 이는 매년 정초가 되면 궁궐과 일반 민가에서 호랑이의 그림을 그려 대문에 붙여 사(邪)된 것의 침입을 막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호랑이에게 사(邪)된 귀신을 물리치는 신동합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며, 이런 그림들을 세화(歲畵)라고 불렀다.

호랑이의 무시무시한 힘은 '용맹(勇猛)'의 상징이 되었으며, 또한 조선시대 무관을 '호반(虎班)'이라고 별칭하며, 무관의 관복 앞뒤에 호랑이 무늬 흉배를 달았던 것도 이 상징과 연관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호랑이의 용맹함을 통해 액을 막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미술사료적으로 가치가 높은 근대 시기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호랑이 작품들로 구성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석 황중하(友石 黃宗河, 1887-1952)는 개성 출생으로, 말년에 호를 인왕산인(仁王山人)이라 할 정도로 호



KBS전주방송총국이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특별한 전시회를 연다.

랑이 그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당대 최고의 작가로 평가받는데,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시에서도 황중하의 작품이 주요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수풀위에 앉아 기만히 한곳을 응시하고 있는 이 작품. 그는 수염 하나하나까지 사실적으로 세밀한 표현을 위해 주로 비단에 그림을 그렸으며, 이렇게 그려진 그의 호랑이는 근엄하면서도 위엄이 느껴진다.

우석 황중하와 함께 그의 형제들(황세 사형제: 우석 황중하, 우정 황성하, 곡촌 황경하, 미산 황통하)은 군산에 서화연구소(1924-1936)를 개설하고 후학을 양성해 난곡 서병갑, 소재 이상길(1901-1959) 등의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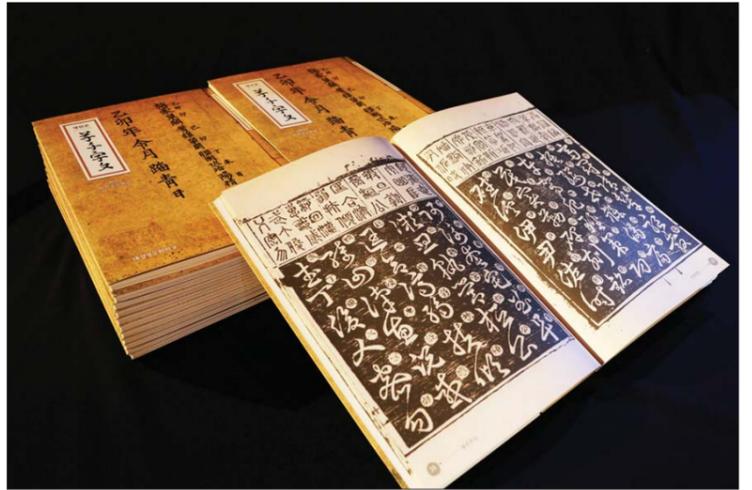
한 제자들도 많이 양성해 우리 지역 미술의 발전에 공헌했다.

이 외에도 우당 조중태(1902-1975), 추경 추교영(1921-1993), 현림 정승섭 등 우리 지역에서 활동한 작가들의 작품도 같이 전시된다.

전시를 관람하시는 모든 관객이 호랑이의 좋은 기운을 가득 담아가고, 나쁜 기운과 코로나19는 모두 떨쳐버리는 행복 가득한 전시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 전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시는 2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KBS갤러리에서 열린다.

/장은성기자



완판본 초천자문(草千字文) 영인본.

완판본문화관, 초천자문 영인본 발간

한자 습자교본 초서체 천자문

완판본문화관(관장 안준영) 학술사업의 네 번째 결과물 '초천자문(草千字文)' 영인본이 발간되었다. 완판본문화관 소장 유물인 '초천자문'은 조선의 명필 서예가인 한호(韓濩, 한석봉)가 1597년 가을에 초서체로 쓴 천자문을 간행한 책이다. 1899년에 중간(重刊)된 목판을 사용하여 1911년 8월 22일 전주 서계서포에서 발행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 천자문 관련 서적은 한자 기초 입문서, 습자교본(習字敎本), 한시 학습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간행되었다. 한자 기초 교육을 위해 천자문을 간행한 경우에는 해당 한자를 큰 글자로 제시하고, 그 아래에 한자의 훈(訓)과 음(音)을 한글로, 한자의 뜻은 한문으로 풀이하는 형식을 취한다.

/장은성기자

완판본문화관 소장 초천자문은 글자 쓰기를 익히기 위한 습자교본을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본문은 한호가 쓴 천자문 초서체가 음각(陰刻)으로 새겨져 있다. 초서체를 쉽게 대별할 수 있도록 동그란 원 안에 작은 글자로 해서체, 본문의 상단에는 전서체가 양각으로 관각되어 있다. 한 페이지에 전서체, 해서체, 초서체 다양한 서체로 천자문을 만날 수 있어 한자 습자교본에 충실한 편찬 의도를 보여준다.

안준영 관장은 "초천자문은 음각과 양각이 혼용되어 있는 관각 기법과 간행 목적에 따라 책의 체재와 내용이 편집되어 있어 출판문화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앞으로도 영인본의 지속적인 발간을 통해 완판본의 다양성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주군,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 체험 추진

무주군이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마을 공동체의 거점공간을 활용, 도시 문화예술인과 농촌 마을 주민 간 교류 프로그램으로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예술가가 무주군에서 살아보고, 한 공간에서 마을주민들과 활동을 하면서 재능 기부 하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군은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 사업 운영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 중에 있으며, 사업대상자는 귀농인의 집 운영단체 및 농촌체험마을 숙소·운영인력 등을 보유해 문화예술인과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창작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마을 또는 단체다.

문화예술인 참가자는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인으로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

거나 희망자로 마을 거점에서 생활하면서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창작과 프로그램이 가능한 자다.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으로 월 50만 원이 지원된다.

군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거점 주거공간 제공과 함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무주군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 강혜경 팀장은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의 유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 운영 희망 단체는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에 우편, 메일 및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무주=전문선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K-컨벤션 국비 공모사업 선정

6000만원 행사 개최 지원금 확보... 지역 마이스산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 앞장

전라북도과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 이하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와 사단법인 한국PCO협회가 주관하는 '2022 K-컨벤션 육성·지원사업' 공모(희망단계)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희망단계는 개최 경력 1~2년 미만의 신규 마이스(MICE) 행사를 대상으로 모두 25개 이상의 기관이 신청하여 6개 행사가 선정되었다.

재단은 도내 최초로 K-컨벤션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6천만 원의 행사 개최 지원금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

토착형 컨벤션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K-컨벤션 사업은 개최 횟수와 규모에 따라 희망, 유망, 우수 3단계로 나뉜다.

이번 재단이 제안한 K-컨벤션은 전북의 절대우위(絕對優位) 자원인 세계유산, 국제적 지정유산, 종교유산, 국립공원 등의 자연·문화유산(遺産)을 활용한 지속가능관광 분야이다.

전북도는 그간 지역 특화 마이스 발굴·육성 사업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공모사업 선

정을 통해 전북의 미래산업, 전략산업 및 뿌리산업과 연계한 특화 마이스 행사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이기전 대표이사는 "이번 K-컨벤션 공모선정을 통해 우리지역 마이스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전북마이스뷰로가 중심이 되어 전북 마이스의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마이스뷰로는 지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하여 전북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은성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